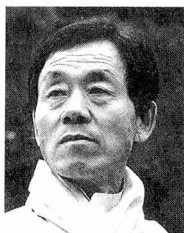


## Essay

# 푸르고 넉넉한 대지(大地)



한 승 원 〈소설가〉

### 참담한 우리들의 대지

촛불을 켜 놓고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불은 초를 녹이고 촛물을 닳아져 없어지게 만든다. 초는 스스로의 몸을 녹여 불에게 기꺼이 제공하고 불은 그것을 승화시킴으로써 빛을 창조한다.

**바는 오  
풀잎은 면다.**

이 글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어린 시절에 맨 처음 익힌 글귀라고 한다.

타고르는 그 글귀를 그의 자서전에서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시성 타고르의 머릿속에서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은 그 글

귀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풀잎은 땅에 앉은 채 그 빗방울에 두들겨 맞는다.

빗줄기는 풀잎을 사랑하는 것이고 풀잎은 빗방울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 반대로 말을 할 수도 있다. 풀잎은 빗방울을 사랑으로 포옹하는 것이고, 빗방울은 풀잎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다.

또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빗방울은 학대(사디즘)하는 것이고, 풀잎은 빗방울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마조히즘)이다.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속에는 상대를 두들겨 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 상대로부터 두들겨 맞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남자는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는 학대당한다. 반대일 수도 있다. 여자는 남자를 학대하고 남자는 여자로부터 학대를 당한다. 사마귀라는 짐승들의 교미하는 것을 보면 기막힌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암컷은 몸집이 크고 수컷은 작다. 교미가 다 끝난 다음에 암컷은 수컷을 잡아먹어 버리는 것이다.

이 세상의 생성과 변천과 발전의 가장 근원적인 밑뿌리는 학대와 피학대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힘의 구조도 학대와 피학대의 현상에 다름아니다. 지배하는 쪽이 늘 학대를 하는 것이고, 지배당하는 쪽이 늘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있다. 아기는 그 젖꼭지를 통해 어머니의 젖을 빨다. 젖은 어머니의 살과 피다. 그것을 빨아 먹고 아기는 자란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 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피로써 만들어졌다. 어머니 핏덩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한 독립된 생명체가 된 것이다.

어머니가 대지라면 아기는 그 대지에 뿌리를 묻고 그 대지의 수분과 무기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푸나무인 것이다.

대지는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푸나무들에게 영양과 수분을 공급한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침을 하도록 자기의 피와 살을 제공하는 것이다.

거미의 일생을 보면 참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암컷 어미는 수컷과 교미를 하고 나서 배가 불러온다. 배속에는 수없이 많은 알들이 들어 있다. 때가 되어 알을 낳고 난 거미는 그 알 속에서 새끼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일시에 껍질을 뚫고 나온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뜯어먹기 시작한다. 어미 거미는 어린 새끼들을 키울 수 있는 짓이 없기 때문에 젓 대신 자기의 몸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미 거미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이나 발버둥 한 번 치지 않고 조용히 죽어 간다.

##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인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전해 온다.

젊고 덩치 큰 한 어미 호랑이는 만삭이 되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며칠 동안 먹이를 구하지 못했다. 굶주렸다. 지나가는 양 떼를 공격하려고 몸을 일으켰다. 양 떼들은 도망갔다. 몇 걸음 쫓아가다가 산 기의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드러누었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새끼 한 마리를 낳고는 숨을 거두었다. 배속에서 갓나온 호랑이 새끼는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 했지만 죽은 어미한테서는 젖이 나오지 않았다. 호랑이 새끼는 배가 고파서 슬프게 울부짖었다. 도망가던 양 떼들이 그 울부짖는 호랑이 새끼에게로 왔다. 그들은 그 호랑이 새끼를 가엾게 여기고 젖을 먹여 주었다. 그들의 자식들과 똑같이 보호하여 주었다. 호랑이 새끼는 양 떼 속에서 양들의 애처롭고 가냘

프고 부드러운 울음과 말과 몸짓을 배우고 양떼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자랐다. 양 떼와 같은 울음과 몸짓과 채식을 하는 습관은 그 호랑이 새끼를 부드럽고 순하게 만들었다.

그 호랑이 새끼가 철이 들었을 즈음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그 호랑이 새끼는 여느 양들처럼 벌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밀려오는 듯 싶었다. 산골짜기 숲에서 거대한 늑은 호랑이 한 마리가 양 떼를 습격했고, 양 떼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고 있었다. 양 떼 속에서 자란 호랑이 새끼는 눈치 빠르게 도망가는 양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았다.

이때 이상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양 떼를 습격하던 거대한 늑은 호랑이가 그 새끼 호랑이 앞에 와서 우뚝 멈추어선 것이었다. 호랑이 새끼는 겁이 났다.

「이제 나는 이 야수한테 잡혀 죽게 되었구나」하고 절망을 했다. 도망하는 양 떼들을 바라보면서 그 호랑이 새끼는 「음매애!」하고 울었다.

「너 이놈, 너는 이 양 떼들 속에서 대관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웬 풀을 뜯어 먹고 사느냐?」

양 떼를 습격한 거대한 늑은 호랑이가 물었다. 겁이 난 새끼 호랑이는 계속 슬픈 소리로 「매애매애」하고 울어대기만 했다.

「너는 왜 네 생김새에 어울리지도 않은 연약한 소리를 내고 있느냐?」

늑은 호랑이는 산골짜기가 부르르 떨도록 큰 소리로 포효했다.

다시 「매애」하고 우는 호랑이 새끼의 뺨을 한 번 후려쳤다. 늑은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밀림 속으로 데리고 갔다. 물이 흐르고 있었다. 늑은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한테 물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그 속에 비친 네 얼굴과 내 얼굴이 서로 비슷하지 않느냐? 너는

연약한 양이 아니다. 용맹스러운 호랑이다. 너는 스스로를 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거라. 너는 풀을 먹어서는 안되고 매에 하고 슬피 울어서는 안된다. 산에 사는 여러 동물들을 사냥하여 그것들의 살코기를 먹고 살아야 하고 으르렁 하고 포효를 해야 한다.」

새끼 호랑이는 늙은 호랑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침내 늙은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자기의 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냥을 해다 둔 노루의 살코기를 새끼 호랑이 앞에 내밀었다. 그가 그것을 찢어 먹어 보였다. 그 살점들을 주면서 먹어 보라고 했다.

처음에 호랑이 새끼는 그것의 냄새를 맞지도 못했다. 곧 구역질을 했다.

「저는 이런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저를 놓아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풀을 뜯어 먹고 살아야 합니다.」

호랑이 새끼는 늙은 호랑이한테 두 손을 비비면서 통사정을 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매에매에」하고 울었다. 늙은 호랑이는 다시 새끼 호랑이의 뺨을 후려쳤다. 강제로 피 묻은 살코기들을 먹였다.

「뜯어 먹어봐. 꼭꼭 씹어서 삼켜 보란 말이야! 눈 딱 감고 삼켜!」

며칠 동안 늙은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굴 속에 가두어 놓고 피 묻은 살코기를 먹였다. 새끼 호랑이는 점차 그 살코기들의 맛을 알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서 그 고기맛을 알게 되었다. 맛나게 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늙은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살코기를 먹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서 새끼 호랑이의 몸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힘이 솟기 시작했다. 그 새끼 호랑이는 허기진 듯이 짐승의 살코기를 찾아 먹었다. 입맛을 쩍쩍 다시고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는 일어서서 몇 년 동안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듯이 하

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푸르렀다. 새끼 호랑이는 산골짜기를 향해 포효했다. 메아리가 들려 왔다. 등뒤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늙은 호랑이가 그에게 물었다.

「이제 네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늙은 호랑이는 그가 자기의 본성에 눈뜰 수 있도록 인도했다.

「나를 따라 오너라 가자. 이제부터는 밀림 속에서 나하고 함께 사냥을 하도록 하자.」

그 새끼 호랑이는 그가 자기의 본성에 눈 뜰 수 있도록 인도했다.

그 새끼 호랑이와 같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 진짜 자기는 어떠한 모습일까.

## 내 입에서는 가시가 돋혀 있지 않은가

우리 민족의 애국자 안중근 의사께서는 사흘만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시며 책을 부지런히 읽을 것을 가르쳐 주셨다.

먼저 그 가르침에서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입에 정말로 가시가 돋혀 있는 사람을 보았다. 내가 탄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교통이 복잡한 네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모든 차들이 멈춰서리면서 거북이처럼 나아가고 있었는데, 한 승용차가 내가 탄 택시 앞에서 끼여들기를 했다. 그러자, 택시의 운전기사는 그 승용차 운전자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퍼부어대는 것이었다. 그 험악한 증오와 저주의 말이 가시 돋힌 말이다.

또 어느날 나는 친지의 집을 방문하다가 골목길에서 눈살을 찌푸

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목도하였다. 한 젊은 어머니가 어린 딸을 꾸짖고 있었다. 그 젊은 어머니는 반바지 차림에 운동 모자를 쓰고 정구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 젊은 어머니의 어린 딸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보니 어머니가 어디엘 가고 없기 때문에 놀라 일어나서 울며 밖으로 나온 것이다. 울어도 울어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길질을 하고 울었던 것이다.

「왜 울어! 뚝! 잠자다가 깨어나면 먹으라고 요구르트랑 사과랑 과자랑 쟁반에 놔두었잖아? 심심하면 읽으라고 그림 동화책도 펼쳐 놓았구. 또 피아노도 있고……」

젊은 어머니의 꾸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린 딸의 흠뻑은 엉덩이를 보고는 짜증 어린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대관절 누구를 닮았기에 이러느냐고 숫제 악다구니까지 썼다. 그 젊은 어머니의 입에도 마찬가지로 가시가 돋혀 있는 셈이다.

그럼 대관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입에 그와 같은 가시가 돋아 있는 것인가.

나는 기차나 비행기로 먼 곳까지 여행을 많이 해보았다. 일요일이면 등산도 해보았다. 이때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일을 만나곤 하였다.

끼리끼리 모여앉아 화투놀이를 한다. 산에 온 부부가 아기를 잠재워 놓고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심지어는 해외여행을 하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화투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식점에서도 해수욕장 근처의 텐트 안에서도 화투놀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미치광이들은 차분히 여관이나 호텔방을 빌려 가지고 그 짓을 한다.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어찌할 수 없이 가시가 돋히게 마련이다.

## 이 세상의 풍요로운 성숙을 위하여

여인들은 모두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백마를 탄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꽃마차에 태워 주기를 늘 기다리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주위의 모든 남성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고, 공주처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약혼 기념일에 자기자기한 선물을 챙겨 주고 결혼 기념일과 자기의 생일에 황홀하게 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린 시절의 꿈들이 하나씩 둘씩 깨어지기 마련이다. 말이 좋아 꿈이지 그것은 사실상 어둠(미망이나 미혹)인 것이다. 우리들의 살아가기는 그 미망의 꺼풀을 하나씩 둘씩 벗어나기인 것이다.

한데 그 미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내내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라지 않는 나무처럼 답답하다. 항상 미성숙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침내 여자는 스스로를 참담한 뜻을 내포한 풍요로운 대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우주를 가슴속에 담아 키워야겠다는 소명감을 가져야만 한다. 여자는 스스로 작은 우주이면서 또 하나의 우주를 잉태하고 그것을 생산한다.

한 여자의 미성숙은 우주를 미성숙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고, 바담식한 우주를 성숙하게 하고 백화 난만(百花爛漫)한게 만든다.▲